



2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첼시를 승부차기 끝에 6-5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지성 있음에 '더블 꿈' 이뤘다

선발 14경기 중 13승... '지성 불패' 별칭
결승전 결장 불구 '숨은 주역' 자타 공인

'더블 달성의 보이지 않는 공헌자'
'산소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22일 오전(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출전이 무산됐지만 보이지 않는 활약으로 맨유의 더블 달성에 기여했다는 평판은 높이 샀다.

박지성은 정규리그에서 1골1도움에 그쳤지만 선발로 출전했을 경우 맨유가 필승을 거둔다는 '지성 불패' 공식을 만들어내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맨유가 결승까지 오르기까지 맹활약을 펼쳤다. 박지성은 AS 로마(이탈리아)와 8강전 홈 앤드어웨이 2경기과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치른 준결승 2경기까지 4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했다. 출전하는 경기마다 평점도 동료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박지성은 영국 언론들의 결승전 선발 출격 예상과 달리 교체 멤버로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결장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경기 직전 엔트리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언 하그리브스의 몸 상태가 워낙 좋았다.

너무 힘든 결정이었다. 박지성은 올 시즌 팀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팀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박지성 선발 여부를 놓고 고민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 축구팬으로서 박지성이 교체 선수 명단조차 들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날 포지션 경쟁자 라이언 깁스가 후보 명단에 오른 것은 이해할 만해도 그동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루이스 나니나 대런 플래처에게도 박지성이 밀려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이번 대회에서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플래처가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은 퍼거슨 감독과 같은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냐며 골치 아픈 시선을 보였다. 박지성은 맨유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둔 뒤 "기쁘다.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팀 우승으로 만족한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첼시를 물리치고 승리한 뒤 박지성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슴 졸인 승부차기 '지옥과 천당' 오갔다

결승전 '진땀 승부'

'맞수' 첼시에 6-5 승리

맨유는 전반 26분 호날두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전반 45분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에 동점골을 내줘 연장전을 치르고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운명의 톨렛게임'에서 맨유는 세 번째 키커 호날두가 실축했으나 첼시 주장 존 테리가 골을 못넣고, 골키퍼 에드윈 판데르 사르가 마지막 키커 니콜라 아넬카의 슈트를 막아내 6-5로 승리했다. 맨유는 지난 1998-1999 시즌 이후 무패행진(10승3무)을 펼쳐며 9년 만에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았다.

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우승팀
1955-1956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56-1957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58-1959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60-1961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62-1963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65-1966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69-1970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71-1972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73-1974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76-1977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80-1981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82-1983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85-1986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89-1990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92-1993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95-1996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97-1998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999-2000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2001-2002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2003-2004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2006-2007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2008-200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맨유는 전반 26분 오른쪽 풀백 웨스 브라운의 크로스를 받은 호날두의 헤딩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다. 첼시는 전반 종료 직전 프랭크 램파드의 행운이 섞인 골이 터져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양 팀은 9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한 채 연장전을 시작했고, 첼시는 연장 전반 3분 램파드의 터닝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불운이 겹치면서 팍을 쳤다. 결국 피 말리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웃은 것은 맨유였다. 맨유는 세 번째 키커로 나선 호날두의 킥이 골키퍼 체호에게 막히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첼시의 다섯 번째 키커 존 테리가 슈트를 하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실축, 분위기가 뒤집혔다. 맨유는 연이어 나선 나니와 안데르손, 깁스가 모두 골을 성공시킨 가운데 골키퍼 판데르 사르가 첼시의 마지막 키커 아넬카의 슈트를 막아내면서 6-5로 승리, 치열한 120분의 승부를 끝내고 뜨겁게 우승 트로피를 포옹했다.

맨유 결승전 주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에드윈 판데르사르가 승부차기에서 첼시의 니콜라 아넬카의 슈팅을 막아내고 있다.

수문장 판데르사르 선발 '일등공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구한 건 역시 백전노장 수문장 에드윈 판데르사르(38)였다. 판데르사르는 승부차기서 결정적인 선방을 펼쳐 팀에 우승을 안겼다. 팀당 5명씩의 키커 가운데 맨유는 세 번째 키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첼시는 다섯 번째 키커인 주장 존 테리가 나란히 실축한 가운데 승부차기는 일곱 번째 키커까지 이어졌다. 맨유의 라이언 깁스가 골을 성공시킨 뒤 끝판 앞에 선 판데르사르는 첼시의 마지막 키커 니콜라 아넬카가 왼쪽 구석으로 꺾여 찬 볼을 몸을 날려 쳐내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첼시의 골키퍼 페트르 체호가 승부차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킥을 막아내고 있다.

선취골 호날두, 승부차기 실축 '역적' 될 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3·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결승무대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한 호날두의 전반 26분 통렬한 헤딩골로 선취점을 뽑아 진가를 알렸다. 그러나 연장 승부 끝에 곧바로 들어간 승부차기에서 세 번째 키커로 나선 호날두는 슈팅 직전 주춤하더니 첼시 골키퍼 체호에게 방향을 잃혀 막히고 말았다. 선제골을 넣은 활약은 모두 잊혀지는 순간이었고 이대로 끝나면 오히려 역적이 될 수도 있었다.

우승상금 1,700억원... 지성도 '두둑'

'돈방석' 앉은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잇따라 제패해 돈방석에 앉게 됐다. 맨유는 일단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리그 중계권료 수익 중 5천만파운드(약 1천억원)를 가져갈 전망이다. 프리미어리그는 중계권료 수익의 50%를 20개 팀에 균등 배분하고, 25%는 상금 성격으로 성적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홈 경기 TV 생중계 횟수에 따라 나눠 준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거둬들일 수익은 더 엄청나다. 지난 시즌 챔피언 AC밀란(이탈리아)은 우승 상금 700만 유로를 포함해 총 3천959만 유로(약 65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맨유에도 3천 153만 유로(약 510억원)가 돌아갔다. 한 대

박지성 내일 '금의환향'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동시에 제패한 박지성이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금의환향한다. 박지성은 24일 오후 3시20분 아시아나항공 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22일 새벽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첼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팀이 우승하고도 출전자 명단에 빠져 아쉬움을 남겼던 박지성은 일단 동료와 함께 전세기를 타고 영국 맨체스터로 돌아가 우승 축하연에 참가한다. 공식 행사를 마친 박지성은 28일 소집되는 축구 대표팀에 합류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인 요르단과 홈경기를 벌이고 박지성은 승리에 힘을 보탠다. 박지성은 다음 달 7일과 14일 치러질 요르단과 투르크메니스탄 원정경기는 물론 같은 달 22일 북한과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까지 태극전사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